

목양칼럼

My turn

My turn,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사역할 때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끊어졌을 때 외마디 비명 소리와 함께 손은 허공을 무수히 헤집었고 몸은 테굴테굴 구르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치료의 때에 아내는 제게 살아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아내를 의지해 일어났고, 아내를 의지해 걸었고, 아내를 의지해 머리도 감았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몸도 고달팠겠지만, 마음도 많이 서럽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젠 my turn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오른쪽 다리뼈를 다친 후, 이젠 제가 아내의 지팡이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깊은 밤. 아내 옆에서 아내가 뭐가 필요할까 바라보다가, 쪽잠을 자다가 하면서 아내가 무엇인가 요청하면 이것저것을 챙겼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 있던 제게는 섬기며 돕는 일이 쉬워 보였는데 섬김은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깊이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몸의 수고와 마음의 정성이 함께 부어져야 하는 고난도의 사역임을 짧은 몇 날 동안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고
또 서로 사람끼리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달리 사람들의 의존은
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받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부부 사이가 아니어도 서로 어려울 때 your turn, my turn....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며 사람 사는 공동체인가 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음/QPEM대학부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국어교부 (646)789-1118	
직인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중국어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반주 / 이선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반주 / 윤현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더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1월 21일
제 44-3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14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채영주 장로 3부 / 황주현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18:1-27	사회자
찬양 CHOIR	주 능력 안에 모든 일 할 수 있게 내가 너와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20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52 / 1,2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황인섭 장로 4부 / 정길표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320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2부/ 출애굽기 18:1-27 4부/ 골로새서 3:1-4	사회자
찬양 CHOIR	기름 부으심 살아계신 주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복음을 믿으라: 부활	2부 / 김성국 목사 4부 /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당신은 영광의 왕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수요 기도 예배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개강 부흥회

오후 8:00 (1/24/18)	사회: 이규본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191	다같이
기도	박휘영 학우
성경봉독	김미권 학우
마가복음 12:28-34	
찬양	찬양대
말씀	민경엽 목사
예수 신경	
헌금 및 찬송 313	다같이
봉헌기도	사회자
광고	사회자
찬송 185	다같이
축도	민경엽 목사

새가족 환영회

제 1과 예수 그리스도는누구신가?

권장 바이블 칼리지(QBC)

오후 2:15-3:15

교회설립 44주년 기념 장학금

신청기간: 1/22(월)-2/18(주)

교회소식

1월 전진의 달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24(수)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개강 부흥회	1/31(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2/7(수) 청장년부 헌신예배 / 지도원 성경공부	2/9(금) 구역 예배
2/17(토) 한국학교 개강	2/19(월)-3/31(토) 사순절 새벽 기도회

알림

- 권장 바이블 칼리지(QBC) 안내** 1) 시간: 매 주일 오후 2:15-3:15 2)학비: 1년/ \$10.00 (1년 교재비 포함) 3) 장소: 청장년부-유아부실, 40대 선교회-중등부실, 50대 선교회-찬양대실, 60대 선교회-고등부실, 70대 이상 선교회-친교실. *유치부실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드립니다. *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대심방일정**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F6, F7, F8, F9, F10 2교구: F4, F5, F7 3교구: BS3, WCT, RW 4교구: F3, F5, F6, LI1, LI4,
- 장학금 신청 안내** 교회 설립 44주년을 기념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1) 대상: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교인) 2) 신청기간: 1/22(월)-2/18(주) 3) 신청서:www.kapcq.org 에서 download 하여 제출 4) 문의:채현주 권사, 박정봉 집사
- 가족기념 장학기금 신청** 가족의 소중한 기념일을 감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구에 신청서가 붙어있습니다.
- 1/27(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중고등부 (다음주: 유초등부)
- 가족기념 장학기금** 고부영 전도사, 채영주 장로, 채현주 권사

새가족

양혜정 (마리아 1F10, 이수정 - 고등부) 정인환 (청년선교 1Y2) 정진영 (청년선교 4Y2)

교우소식

병 환 김명자 사모(3BS1)께서 뉴욕병원에서 수술 후 가료중입니다.

금식기도자

월 / 안진우 홍현숙 최경민

수 / 김원도 김명희 이영희 김경미

금 / 조선희 추엘리사 이애자 신기만

주 / 성정미 박승희 함상윤

화 / 이상성 오지현 최치훈

목 / 김원도 김명희 전해순 이영희 김경미 이양미

토 / 백순희 조경옥 배인구 이영재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15	러시아어 예배	22	영어부	31	중등부	60
2부 예배	377	청년 선교부	85	유아부	38	고등부	52
3부 예배	330	주일 저녁 예배		유치부	29	청년 대학부	38
4부 예배	149	새벽 예배	835	중국어 교육부	24	교회 학교 예배	446
영어 예배	172	수요 기도 예배	170	유년부	94	주일 낮 장년 예배	1760
중국어 예배	310	새가족 환영회	12	초등부	80	주일 낮 총계	2206

1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김수산 장로

헌신기도	장봉석장로	고국환장로	박영권 장로	송동윤 장로
책임권사	장현미 권사	이정심 권사	주광자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루디아, 여호수아 주일식사: 마르다(다음주: 다비다)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진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25)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월 - 사도신경/ 찬송가 545장 /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7장 1-9절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그 때문에 본문의 바울도 이런 체험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탄의 하수인들 처럼 으르렁거리며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티 내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생색나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감당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배려하고 우리의 본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에게 인내합니다. 그들로부터 마땅한 보상과 찬사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찬송가 546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7장 10-15절

베뢰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린 자세로 그들의 지성을 이용하여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제를 단순히 '감정적 느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몰입하기를 원하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지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칩니다. 지성을 수반한 건전한 비판 정신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한층 강화해 줍니다. 더 확실히 믿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신앙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에는 많은 이단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입니다. 많은 신자가 이에 현혹되어 교회를 떠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믿음의 근거가 약해서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말씀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찬송가 542장, 시선/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7장 16-21절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자 노력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죽은 문화와 사상에 불과한 것이기에 아무리 외적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배격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아테네를 보며 의로운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종종 복음의 핵심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의분에 찬 말들을 쏟아내곤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분노를 느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하지만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분노는 바울처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찬송가 540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7장 22-34절

우상 숭배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고안해 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던 아테네 사람들의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 우상 숭배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정한 종교는 인간의 필요나 뜻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소위 믿는 사람 중에도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현실의 아쉬운 필요를 위해서 '여러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필요할 땐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뜻과 필요가 우선되기도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도 유익함을 믿으며 견디어 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찬송가 357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8장 1-11절

아테네가 우상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철학적 방법으로 전도했던 바울은 소수의 사람만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성적 타락의 도시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난관을 만날수록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이 어려울수록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배제하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8절). 우리 앞의 문제가 커 보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기에는 성경이 너무 낡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충분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합니다. 진리에 대해 믿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해 줄 것입니다. (요일 5: 3-4).

합심 기도/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모든 상황 속에서/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8장 12-17절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 갈리오를 이용해서 바울과 복음을 막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해와 폭력을 사용하여 바울을 막고자 했다면, 이번에는 공인된 종교 외에는 포교를 금지하는 로마법을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바울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복음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장 상사나 어떤 분야의 권위자를 사용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온갖 술수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한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주도록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이 승리로 바뀔 것입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